지상백고좌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송암 혜승 대종사

“1일 1선행 실천하면 보살될 수 있습니다”

12면에 이어

먼저 자판기의 커피 한 잔 뽑아주는 것도
지하철 탔을 때 자리 양보하는 것도 선행
복의 인연 좋아한다면 여러 선행을 닦아야

종단본 ‘통일 법요집’ 모든 사찰서 활용을
정기적으로 종단 차원 포교지 발행 제안도
“‘불교성전’ 문구들만 읽어도 법회에 도움”



양주 연화사 연화원에 있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혜승 스님.



구순의 노구에도 혜승 스님은 직접 괭이질을 하며 매일 도량을 가꾼다.

처음 불문(佛門)에 들어온 사람이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하는 〈초발심자경문〉을 통해 불자로서 지켜야 할 예의를 가르치고 싶단다.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에 나오는 ‘수많은 중생이 불집의 고해 속에 드나드는 것은 한량없는 윤회 속에서 탐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탐진치 삼독을 오히려 집안의 보물로 삼고, 오욕을 마음의 보배로 삼기 때문이다. 고요한 산에 들어가서 수도는 못하여도 스스로의 힘에 따라 선행을 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서 스님은 불자라면 오계 정도는 외우고 실천해야 함을 강조했다.

“누가 불교의 오계를 물으면 바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수경〉을 읽을 때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고, 읽는 데 그치지 말고 실천해야 합니다. 탐진치 삼독만 잘 다스려도 마음이 편하고, 사는 데 자신이 생기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불자가 됩니다.”

남에게 기쁨 주는 불자가 돼라

함허 선사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근기가 날카로운 이도 보살이 될 수 있고, 근기가 낮은 사람도 천상에 태어날 수 있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스님도 “남이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남에게 작은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법문을 이어갔다.

“하루에 한 가지 선행을 하겠다는 원을 세우는 것이 보살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먼저 자판기의 커피 한 잔을 뽑아주는 것도 남에게 주는 것이 기쁨이요, 버스나 지하철을 탔을 때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선행입니다. 복의 인연을 좋아한다면 마땅히 여러 선을 닦아야 하고, 많은 선을 다 닦지는 못할지라도 하나의 선은 충분히 행할 수 있잖아요.”

세납 구십인 혜승 스님은 눈이 아파 예전처럼 책을 마음껏 볼 수 없음을 안타까워했다. 요즈음 역경원에서 새로 발간한 〈불교성전〉을 하루에 한두 장씩 본다고 했다. 스님께서는 날마다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화엄경〉을 하루에 두어 장씩 읽어서 다 완독했어요. 적은 분량이지만,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불교성전〉이 간단하게 명료하게 번역이 잘돼 있어 누구라도 읽게 되면 부처님 생애부터 다양한 불교 가르침을 알 수 있는 책이라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종단의 원로로서 이 같은 제안도 했다.

“저는 조계종 포교원에서 발행한 〈통일 법요집〉을 모든 사찰에서 사용하면 좋겠어요. 조계종에서 제작한 기초교리가 있는데 그 책자대로 가르치면 전국 불자들이 기초교리에 대한 이해는 공동으로 똑같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단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초하루와 보름에 한 번씩 포교지를 발행해서 전국 각 사찰에 보내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게 만든 〈불교성전〉에서 나온 글을 담은 포교지나 소식지를 각 사찰에 보급하면 주지스님들이 읽어주기만 해도 법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포교 일선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원로스님이 제안한 종단 〈통일 법요집〉 활용과 종단 포교소식지 발행은 일관되고 표준화된 의례로 법회를 봉행하고 설법을 할 수 있다는 데에서 후학들은 새겨야할 대목이다.

아침저녁 3분만 투자해보세요

이내 스님께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작금의 4차 산업혁명시대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까”라고 물었다. 혜승 스님은 “부처님 말씀대로 살라”고 했다. 우문에 대한 현답이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산다고 해서 삶이 힘들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달으면 됩니다. 잘 살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인연을 잘 지으면 됩니다. 계행을 잘 지키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고 행복하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몰라요. 저는 아침저녁으로 3분씩만 할애하면 자신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오늘 하루 무슨 일을 할 것인지 3분 정도 생각해 보고, 저녁에 자기 전에 3분 정도 염불하고 오늘 하루 한 일을 했는지 반성해보면 됩니다. 좋은 일을 했으면 한없이 기쁘고, 좋지 못한 일을 했으면 얼른 참회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나가면 그게 수행이 되고 인격이 향상되는 것이지요.”

하루 6분, 아침저녁으로 3분씩 무엇을 할지, 무엇을 했는지 점검하고 참회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스님의 말씀은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말라’는 따뜻한 충고였다.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씩 실천하면 인격이 높아져요. 부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게 된다면 인격이 달라지고,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지지요. 부처님과 점차 가까워진다는 것을 느낀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스님께서는 하루에 6분은 길지 않은 시간인데도 실천하는 사람이 드물다면서 안타까워한다.

올 설날에는 혜승 스님이 직접 쓴 ‘수처작주(隨處作主)’를 프린트해 족자로 만들었다. 1000개를 제작하여 세뱃돈으로 나눠줬다. ‘어디에서나 주인의 삶을 살라’는 것이 스님의 가르침 중 하나다.

“보는 것이 내 것이고, 듣는 것이 내 것이고, 향내를 맡는 것이 내 것이고, 먹는 것이 내 것이고, 쓰는 것이 내 것이니 우주의 주인은 ‘나’입니다. 우주가 내 것이라 생각하면 얼마나 소중할까요. 내 것은 모두 소중하잖아요. 주인의식으로 자연을 대한다면 함부로 훼손하지 않고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목욕탕에 가서도 물을 아끼고, 깨끗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면 가는 데마다 복을 짓게 됩니다.”

노령에도 괭이질로 직접 사찰 일궈

인터뷰가 끝나자 혜승 스님은 바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괭이를 챙겨서 뒷산으로 갔다. 종종걸음으로 따라가니 괭이로 묵은 풀을 걷어내고 땅을 고르는 작업을 했다. 노령이 걱정돼 힘들지 않냐고 물으니 스님은 웃으며 “일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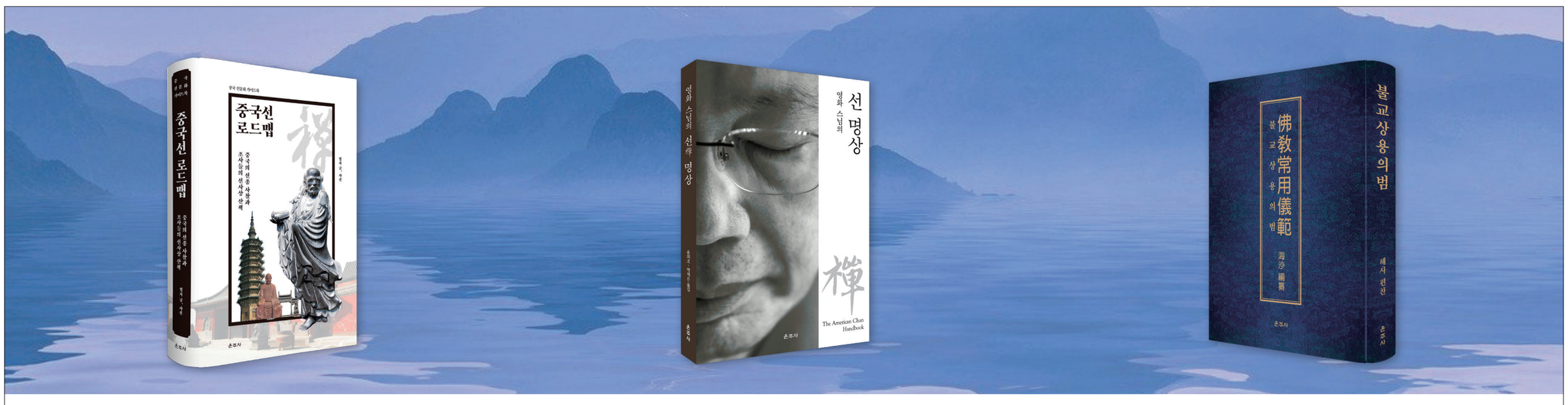
“수목장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옮겨 심는데 나무도 함부로 심으면 죽어요. 며칠 전 옮겨 심은 나무들이 잘 자리잡았는지를 살펴야 해요.”

혜승 스님은 “마음 건강 몸 건강을 다 챙길 수 있는 도량이 필요한 시대”라고 했다. 연화사 대웅전 앞에 의상 조사 법계도를 그려놓고 모래로 채웠다. 모래 위를 걸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장수한다는 말을 듣고 신도들을 위하여 만든 것이다. 신도들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노스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연화사 대지가 1만5000평인데 양주에서 제일 큰 사찰을 조성해 시민이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도량을 만들겠다는 꿈이 있어요. 선원을 만들어서 사찰의 격을 갖춰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을 위한 명상센터를 짓고, 불자들의 수행처 100여 세대 지을 계획도 하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도량을 가꿀 것입니다.”

혜승 스님은 인터뷰 내내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부처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늘 하루 부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은 행복한 삶을 위한 시간이요, 좋은 업을 쌓아가는 행위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문윤정 / 작가



중국의 선종 사찰과 조사들의 선사상을 찾아서!
중국선 로드맵
선종 초조 달마대사부터 허운선사에 이르기까지 역대 조사들이 머물던 사찰의 역사와 현황, 선사상을 정리해 놓은, 한권으로 만나는 ‘중국선종사’이다.
법지 글, 사진/신국판/양장/496쪽/값 33,000원

혼자 명상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입문서!
영화 스님의 선 명상
초심자를 위해 기초적인 앉는 자세부터 경험 있는 수행자를 위한 기본 마음가짐과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명상 안내서이자 지침서’이다.
영화 스님 지음, 윤희조, 박재은 옮김/신국판변형/무선/244쪽/값 15,000원

사찰에서 일상적으로 설행하는 재 의식 총망라!
불교상용의범
조석예불과 사시마지, 각단 예경의식, 천도재나 각종 재회 시 설행되는 제반의식문, 각단에 올리는 불공의식문, 각종 시식과 영반 등 누구나 편리하게 집전할 수 있도록 편찬!
해사 편찬/사륙배판/양장/696쪽/값 5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